

韓·中 출판교류의 실질적 교두보

3월 1일 개장한 중국도서전문점 '三聯書店'

12억의 사람들이 세계에서 세번째로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사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음에도 장님이 코끼리의 형상을 더듬듯 좀처럼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나라다. 비록 40여년의 斷交가 있었지만 유사 이래 이웃해온 중국에 대한 정보는 뜻밖으로 일천한 게 사실이다.

韓·中수교를 눈앞에 두고 본격적인 중국관계 전문서점이 문을 연다. 오는 3월1일 종로구 동숭동 192의 10 우당기념관 2, 3층에서 개장할 '三聯서점'은 9만여권의 중국학 관련 책을 구비, 그동안 자료의 빈곤에 허덕였던 이방면 연구자들과 반갑게 조우할 예정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들대로의 고충이 많지 아니했습니다. 일본이나 홍콩에 한번씩 나갈 때마다 보따리장수처럼 책을 사들고 와야 했던 답답함도 고역이었지만, 3~4년 전부터 불어닥친 한·중교류 바람이 여기저기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보며 정보의 빈곤을 실감했지요. 늘 전문서점이 하나 있어야겠다 생각하던 차에 지난해 건국대에서 열린 중국도서전은 이방면의 자료와 책에 대한 갈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준 행사로 주춧돌이 된 우리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서점설립계획을 앞당기게 했습니다."

중국대륙도서의 총판으로 중국책을 전세계에 보급해왔던 홍콩 三聯書店과 계약을 맺는 것에서부터 세세한 부문에 이르기까지 '서울삼련'이 문을 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온 김명호(43·건국대 중문과) 교수는 서점의 이름은 내걸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중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종합문화센터로 더 활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모두 300여평의 넓이에 3층에는 서점이, 2층에는 대륙에서 발행하는 각종 잡지를 볼 수 있는 휴게실과 전시실로 꾸며진다. 주로 취급할 책은 文學, 史學, 哲學, 漢醫, 예술, 기초과학 등의 서적이 중심을 이루며, 이중 일부는 번역작업을 거쳐 일반독자와 만나게 된다. 서점설립에 절대적 후원을 했던 中國學會회원 교수들이 편집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책선정과 번역의 책임을 맡는 한편 우리의 문학작품이나 학술서적들도 중국어로 소개할 예정. 현재 「중국미술사」(蔣勳)를 비롯해, 현대중국의 변천과정을 두 가정을 모델로 분석한 「金翼」 등이 번역중에 있다.

2층 전시실에는 탈, 벼루, 인형, 彩石, 연 등 민예품의 전시를 비롯해 清末에서 현대에 이르는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중국현대미술 기획전 등 선별된 중국문화의 정수를 보여줄 계획이다. 또한 사천서전, 상해서전, 사천전시회 등도 구상중이다.

"중국은 출판 및 유통의 형태가 독특합니다. 사회주의권이 대체로 그렇듯 일정한 부수로 한번 찍어나오고 나면 그만으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드물지요. 1년에 2만5천종 가까이 쏟아져나오니 3개월만 지나면 古書 취급을 받아야 그러니까 좋은 책의 경우 출간소식을 듣자마자 구입해 두지 않으면 찾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서점은 연구자들에게 그런 난점을 해결해줄 생각입니다. 또한 상해, 사천, 광주, 북경 등 각 지역마다 출판이 매우 활발하고 특징적이어서 각 도시에서 발행되는 도서들만을 묶어 전시회를 여는 것도 흥미있을 겁니다."



삼련서점 전경. 서울 동숭동 우당기념관의 2, 3층을 쓰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사전왕국'으로 불릴 만큼 기초공급서가 매우 발달돼 있는데 중국에서 발행되는 각종의 사전을 모아 보는 것도 우리 출판계에 신선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김교수는 이밖에도 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강당에서 중국의 저명한 학자나 작가를 초청, 강연회도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다채로운 전시기획이 짜임새있게 마련될 수 있는 것은 이를 주선할 홍콩삼련이 우리 개념의 서점과는 매우 틀린 형태이기 때문. 홍콩 중심가에 12층짜리 단독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三聯書店은 출판, 인쇄, 도서수출입, 전시기획 등도 겸하고 있는 대형문화센터이다. 그중 서점은 독자서비스의 일환으로 전체 삼련업무의 한 부분일 뿐이지만 도서보관창고 규모도 48년 '生活' '讀書' '新知' 등 3대 서점을 통합, 설립되어 이후 세계적 공신력을 얻으며 미수교국을 포함한 각국에 중국문화를 소개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48년 '生活' '讀書' '新知' 등 3대 서점을 통합, 설립되어 이후 세계적 공신력을 얻으며 미수교국을 포함한 각국에 중국문화를 소개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三聯'이란 이름은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서울三聯은 홍콩의 분점이나 지점은 아닌 독자적인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었는데 앞으로 본격화될 한·중 문화교류의 교두보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정혜옥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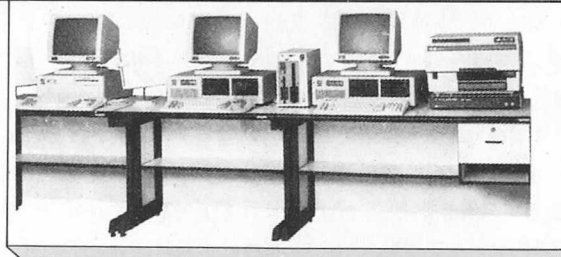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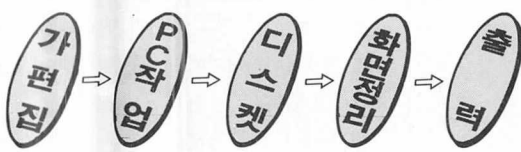
출판회소식

출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돕겠습니다.

사식비를 줄이십시오!

PC로 입력하신 원고도 디스켓만 주시면 교정지나 인화지로 처리해 드립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십시오.



기획/편집/디자인 전문

M 밀알문화사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231-2
TEL. 268-5991/279-2626 FAX 268-5991

전산 및 출력시스템

- 편집기능이 다양하며 화면에서 편집이 가능
- 작업기능이 신속하여 다량의 원고처리 가능
- 서식, 도표, 그래프 등 그래픽 기능과 이미지 처리 가능
- 한글, 한문, 일어, 영어 등과 서체, 급수 등을 자유선택
- 교정지(300, 600 LBP)로 교정후 인화지로 출력가능
- 인화지 출력이 불필요한 경우 포지필름으로도 출력가능
- 카다록 등 고급 인쇄물제작 위해 수동식자기 보유

카렌다/카다록/박스/학위논문/식순지/사보 및 월간지/각종 안내장/단행본 및 전집류/각종 홍보물제작

